

현대사회에서는 소비자가 생산자의 목소리를 압도하기 쉽다. 어린애가 어머니의 젖을 찾는 모습을 보면, 인간의 근본도 생산이 아니라 우선 소비라고 생각해도 좋은 것이 아닐까 싶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직전에 젖죽을 입에 넣은 것을 본다면, 부처님 역시 소비자였지 생산자는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경제활동의 근본은 소비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소비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물론 욕망 때문이다. 그 하나는 개체 보존욕(식욕)이며, 또 하나는 종족 보존욕(성욕)이다.

불교는 일반적으로 모든 욕망을 눈앞의 적(敵)으로 하라는 가르침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결코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근원적인 욕망은 우리들이 생존하는 한 완전히 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이 두 가지 근원적인 욕망에 대해서 지나치게 엄격한 것대나 도덕적인 기준을 적용하지는 말라는 의미이다. 불교 수행에서 단지 경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자아의식 즉, '탈나식(末那識)'과 결부된 자기중심욕이다. 욕망이 자기중심욕과 결부되면, 때로는 불교 최대의 계율인 살생계(殺生戒)를 범하기까지도 이른다. 이와 같이 욕망과 자기중심욕이 결부된 모습을, 불교에서는 '자아에로의 포로(囚人)' 즉, 아집아트마구

라스이라 부르고 가장 경계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구경제학은 인간의 욕망을 중세의 가톨릭 교회의 질곡으로부터 해방되는 시기에 발생한 배경도 있고 해서, 욕망에 관해서는 관대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어쩌면 욕망은 경제활동의 원동력으로

서 높게 평가돼 왔다고도 해석된다.

그런데 유럽공동체(EC)의 위원장이었던 맨스필드가 재임 중에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의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

“인류가 지구자원·환경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인구 및 욕망을 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정말로 중대한 역사적인 발언이다. 경제학 사상 이제까지 인구(人口)에 관해서는 유명한 T.R. 맬더스의 인구억제론이나 K. 마르크스의 반론으로부터 수 차의 세계인구회의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논의

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런데 욕망에 관해서는 사회주의 경제학을 포함해 누구 한 사람 그 억제를 주장한 사람은 없었다. 욕망이 논의의 중심이 된 때는 어떠한 경제체제가 보다 많은 욕망을 보다 널리 공평하게 충족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만을 논의해 온 것에 지나지 않는다.

불교경제학의 소비관은 바로 욕망의 억제 즉, '소욕지족(少欲知足)'을 주장하고 있다. '소욕지족'의 정신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족(自足)함을 알자'는데 있다. 석존은 “만일 족한 것을 알게 되면 몸은 비록 사바(沙婆=苦海)에 처해 있더라도 희락을 느낄 수 있는 것이지만, 자족하지 못하면 천국에 살더라도 만족함을 모르고 항상 물욕에 끌려서 희락을 모

였던 것이다.

소비의 원천은 소득이다. 보통, 소득의 일부가 세금으로서 국가에 납부되고 나머지 소득(가처분소득)은 저축과 소비로 둘러진다. 그러므로 소비는 가처분소득에서 얼마만큼 소비로 돌아가는가(소비성향)가 관건이 된다. 지구자원 및 환경문제를 생각할 때, 지금은 평균소비성향을 낮추어 웬만큼의 저성장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지구를 위기에서 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불교의 소비에 대한 자세는 어떤가?

각지에서 불교문화가 꽃이 피었을 때 건축물이 그 화려함을 다투어 훌륭한 불상이나 사원이 건립된 예는 적지 않다. 불상을 보면 여래(如來)는 옷을 입고

아난다(阿難多)가 우다야 왕비 사마비타터로부터 5백 벌의 의복을 공양 받았을 때, 아난다는 이것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왕은 이것을 보고 아난다가 혹시 탐하는 마음(貪心)에서 받은 것은 아닌가 하고 의심했다. 왕은 아난다를 방문하여 물었다.

“존자는 5백 벌이나 되는 옷을 한 번에 받아 어디다 어떻게 쓸려고 하십니까?”

아난다는 대답했다. “대왕이시여! 많은 비구(比丘)들이 낡아 헤어진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옷을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헤어진 옷은 어떻게 합니까?”

“헤어진 옷으로 요시트를 만듭니다.”

“요시트가 남아지면?”

“베개부대로 쓰지요.”

“그러면 낡아진 베개부대는?”

“병상의 깔개로 씁니다.”

“병상 깔개가 남아지면?”

“발 덮개를 만듭니다.”

“발 덮개가 남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겜레로 씁니다.”

“남아진 겜레는?”

“대왕이시여! 저희들은 이 겜레를 잘게 썰어서 진흙에다 섞은 다음 이것을 집을 지을 때 벽속에 넣습니다.”

모든 물건은 소중하게 쓰여지지 않으면 안된다. 될 수 있는 한 살려서 재활용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본래 '내 것'이 아니며, 이 세상의 존재로서 나에게 맡겨진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내게 맡겨진 물건'이라고 하는 생각은 우주로부터 맡겨진 것이라는 의미이다. 소욕지족과 자족의 절제된 생활경제는 이와 같은 원시 불교승단의 소비태도와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 안동대 경제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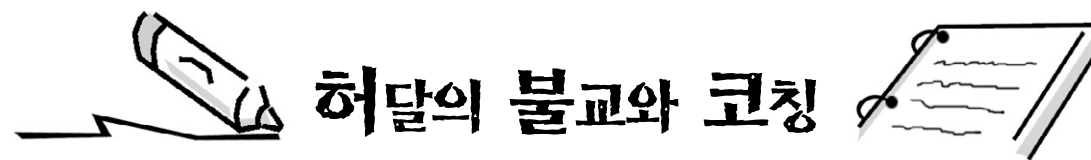
②9 상호의존성에 주목하라

몇몇 가까운 코치들이 모여서 하는 친목 겸 학술 모임이 있다. 금년 송년모임으로는 모처럼 호시름 좀 해보자는데 의기투합해서, 모 호텔 부페식당에서 아침 겸 점심을 들기로 하고 모였다.

브런치 하면 생각나는 것이 미국 남부 재즈의 고향으로 알려진 뉴올리언즈의 프렌치 쿼터에 있는 브레넨 식당의 유명한 아침 식사이다. 이 프렌치 쿼터라는 거리는 기본적으로 청교도 나라인 미국의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 하여, 취권이 만취가 되어도 흥이 되지 않는 거리라고 해서, 술꾼들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모처럼의 해방구를 찾은 술꾼들이 전날 밤 과음의 업보인 쓰린 위장을 안고 찾는 식당이 브레넨 식당인데, 굴 요리와 게 요리 그리고 다채로운 달걀요리가 가게의 자랑이었고, 아침 식사임에도 불구하고 요리마다 추천 와인인 따른 메뉴를 제공하여 '과연' 하고 미소를 머금었던 일이 기억 난다.

모임 날의 브런치는 부페였지만, 정갈하고 깔끔한 초밥, 이태리 식의 야채볶음과 조갯살 요리, 생굴과 올리브유에 데친 해산물 요리 등을 아침부터 삼패인, 백포도주 등 음료와 곁들여 브레넨 식당 못지 않게 훌륭하게 즐길 수 있었다.

음식과 음료를 즐기다 보니 화제는 과식, 체중조절 특히 여성 코치들의 왕성한 식욕과 몸매 유지 비결 등으로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최근 다녀온 인도나 미투나(Mithuna) 조각상에서 발견되는 미인 척도(尺度)나 옛 중국 당삼채(唐三彩)에 표현되는 미인



허탈의 불교와 코칭

척도가 모두 요즘 기준으로 보면 비만에 가까운 푸근한 몸매를 최고의 이상형으로 매깁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다산(多産)의 풍성함을 예감하는 아름다움을 이야기 했지만 여성 코치들은 별로 감동(?) 받지 않은 것 같았다. 코치들이 예로 든 코칭 사례 중에는 의외로 영양과 건강, 다이어트 등에 관한 라이프 코칭이 많았는데, 다이어트로 시작된 코칭이 결국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본질적인 문제로 발전하여 해결책을 찾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살, 존재 등에 대한 창조론과 대비해 금세 최고의 다윈론자로 불리는 리처드 도킨스의 많이 읽히는 최근 저서 <지상 최대의 쇼> 등도 언급되었는데, 삶과 죽음에 대한 그의 표현이 재미 있어 내가 소개하였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 역설적이지만 이 말은 우리가 행운을 타고난 존재라는 말도 된다. 우리가 상상하는 대부분의 잠재적 존재들은 죽음을 경험하는 행운을 갖지 못한다. 그들은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나를 대신하여

존재할 수도 있었으나 실제로는 결코 삶을 성취하지 못한 잠재적 존재들의 숫자는 아라비아 사막의 모래숫자 보다 많다.”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여기 있는 개개인의 존재 확률이 과학적 잣대로 보아 기적에 가깝다는 의미이겠지만, 이 낮은 개연성이 자아에 집착하는 사람들에게는 창조론의 발미가 된다. 그러

나 대해 선사의 행장을 기록한 <서장(書狀)>을 참고하면, 아래와 같은 이참정의 계송(出相頌)으로 읊어

모든 존재는 '관계'에 의지한다

지게 된다.

눈가죽으로 삼천大千 세계를 덮고/ 쿿구멍에 백억 화신을 가두네 / 개개가 장부이니 뉘러서 굴복할 것인가/ 창천백일애 사람을 속이지 말지라.

도킨스가 과학적 사실을 냉정하지만 다소 시니컬하게 서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참정의 이 계송은 주객(主客)을 떠난 다른 차원의 어떤 의미를 보여준다.

“부처가 하신 말씀, 너희들 모두가 곧 이미 이룬 부처라는 말씀을 한 지 의혹 없이 굳게 믿은 것이니, 이로써 깨닫는 자리에 나아가 부처님의 은혜를 갚은 것이다.” <서장>을 공부하던 언젠가 어설론 저작 해설을 잔글씨로 책갈피에 써두었던 기억이 난다.

어떤 코치는 삶과 죽음에 대하여, 창조론에도 일리가 있다 하겠지만 패자 부활전이 없는 것이 문제 아니겠느냐는 재미있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인과률(因果律)이란 과학이며, 어떤 경우에도 원인이 있으면 그 과보(果報)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창조론을 따르다 보면 죽음이 인과법칙의 이행을 거부하는 모순을 낳게 된다는 점에 그의 생각이 이르러 된 것이었다. 그래서 인과(因果, cause and effect)와 연기(緣起, conditioned genesis)의 과학 이야기가 잠시 더 이어지는 화제가 되었다. 이들에게 연기를 설명하기 위해 내가 원용했던 고려대 물리학과 양형진 교수의 글 ‘물리학을 통해 보는 불교의 중심사상’ 중 연기와 상의성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 이 날 있었던 코치들의 송년회 소묘(素描)를 끝맺는다.

“연기론의 핵심 의미는 상호의존성, 줄여서 상의성(相依性)인데, 이에 대한 유명한 비유가 <갈대경(蘆經)>에서의 세 개의 서로 의지하고 선 갈대뭉음에 대한 것이다. 물 분자가 물의 성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산소 원자와 두 개의 수소 원자가 서로 의지해야만 가능하다는 것과 같다. 물질계뿐 아니라 인간 관계도 그러하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코칭 질문을 살펴보자. 결국 모든 존재는 다른 무언가와의 관계에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이 상의성이다.” ■ 한국코칭센터 교수